서울YWCA

2021 5/6
vol.612

[2021 서울YWCA 중점운동]

기후위기대응

제로 웨이스트
즐거운 불편운동
에코서포터즈 양성

YWCA 서울YWCA

새 회관 준공식 기념 테이프 커팅(1999. 6. 24)

1999. 6. 24

새 회관 준공식

1991년 9월 이사회에서 회관 신축이 결의된 후,
서울Y 옛 회관이 1996년 9월부터 철거된다.
1996년 11월 25일 회관 기공예배 및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신 회관 건축을 시작한다.
당시 이주영 회장, 박정희 건축기성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의 기도와 헌신, 다양한 모금 활동에 힘입어
1999년 6월, 대지 430평 연면적 4,785평
지하 8층 지상 12층에 이르는 지금의 회관이 완공된다.

준공 후 스무 해가 넘도록 회원과 함께하고 있는 서울Y 회관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공동기도

하나님, 기둥이 기울어지고 서까래가 삭아 버린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우뚝 서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노동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6월 공동기도

하나님, 평화의 꿈은 유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화의 땅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기억 속에 각인된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호불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단호하게 평화를 선택할 용기를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아멘.

서울 YWCA
vol.612
2021년 5·6월호

2 **숫자로 보는 서울Y**
4 **나를 살리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6 **서울Y 이슈**
이사 · 위원 연구모임
8 **현장 속으로**
세탁세제 품질 비교분석
10 **환경과 여성**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12 **기독신앙과 여성**
성(性)과 영성
14 **예술과 여성**
가부장 사회에 도전한
조선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16 **소비자 상담**
필수가 된 산후조리원,
현명하게 조리하자
18 **서울Y 소식**
3 · 4월 뉴스
5 · 6월 행사안내
5 · 6월 캘린더
26 **알림터**
28 **후원 소식**
32 **하나님의 정원**

〈서울YWCA〉 2021년 5 · 6월호 **통권** 제612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서현정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이종미 성지희 **발행처** 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seoulywca
검색창에 서울YWCA
blog.naver.com/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김영자
청소년팀 위원

1970년 청년회원으로 서울Y 성경공부클럽 '빈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주1회 성경공부를 기본으로 수양회, 창작예배를 통해 믿음을 키우며 회원들은 세례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소망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신 대목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7)

늘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이다. 40년 이상 교사로 지내며 이 말씀으로 교사가 직업이 아닌 삶이 되었다. 다음날 수업준비로 퇴근이 늦은 밤이 이어졌으나 피곤함보다 감사함이 컸다. 학교생활에서 '빈들의 소리'로 실천하려 힘쓰며 지냈다. 명퇴 후 기독교대안학교에 부임, 힘들었지만 새벽기도로 은혜를 간구하며 받은 분별력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놀라운 은혜의 나날이었음을 고백하며 퇴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부탁하신다.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맡기실 하나님의 일을 감사와 사랑으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나의 나됨은 상황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순종하면 내일을 허락하심을 깨닫는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손길이 점점 뚜렷해지고 순종할 때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다.(눅 17:20-21)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고난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놀라운 기쁨의 날로, 특별한 날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다.

요즘 새삼 어려움을 준 말씀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마 22:36-39) 이 어려운 계명을 실천하는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영적인 생활과 아닌 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체가 드려지는 생활이다. YWCA는 정의 · 평화 · 생명존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게 한다. 100주년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한다.Y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장휘은
청년기자단 1기
총신대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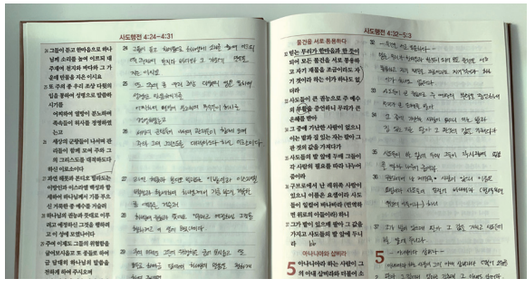
따뜻한 햇살 아래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봄기운이 느껴진다. 마스크를 쓰고 벚꽃을 보는 게 두 번째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 마스크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답답함은 사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해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지난 한 해 예상치 못한 새로움으로 우리 모두 불편하게 지냈다. 경험 없이 처음 맞닥뜨리는 그 불편한 일상을 살아내며 힘듦과 무기력함이 쌓여갔다. 축 처진 개인의 믿음 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느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기도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한 마음은 오직 나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며 코로나로 인해 흩어진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니 신경 쓸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알맞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주셨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도행전 필사, 큐티 챌린지를 진행했다. 큐티와 필사를 통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과 공동체성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 궁극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핵심 가치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가진 것을 나누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참 귀하고 멋있어 보였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함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사역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교류하며 지내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그들과 연대하게 하심으로 혼자서 묵묵히 세상과 싸우는 것이 결코 유일한 답이 아님을 알려주신다. 오늘도 나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그들과 힘을 얻어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닮아가기를 기도한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Y 회원님을 살리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빌려 묵상해보시길 바란다.Y



이사 · 위원 연구모임

서울Y는 3월 25일 2021년 이사위원연구모임 특강을 온라인 줌으로 열었다.
이사 · 위원 · 실무활동가 108명이 모여 개회예배를 드린 후 특강을 들었다.
창립 100년을 앞두고 새로운 운동 방향을 고민하며 YWCA의 뿌리인 'W(여성)'과 'C(기독)' 정신을 되새기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 속 기독여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모색했다.

[특강]

YWCA 기독운동 – 위드 코로나 시대 기독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의 계명' 실천이 답이다

강사_ **장윤재** 고문목사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

서울Y는 해마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함께하는
이사 · 위원연구모임을 열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단체의 임무를 다하고자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중지를
모으며 '깨어있는 여성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을 구한 복음의 시작 "손 씻으세요"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당시의 역사에 그 해답이 있다. "손 씻으세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125년 전 조선을 구했다.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는 교리 전파에 급급하지 않고 가난한 조선 백성을 위해 의학 상식 보급에 힘썼다. 선교사와 '전도 부인'의 손에는 성경과 함께 소책자(한글 질병 예방법)이 들려 있었고 예배당은 복음 선포와 동시에 위생 교육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병과 역병을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백성에게 참 자유와 광명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깨어난다. 냉철하게 돌아봐야 코로나 시대를 바로 살 수 있다. 지성을 경시하고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며 믿음을 몽매주의로 인도하는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안셀무스 Anselmus, 1033-1109)"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지구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음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지금의 상황은 환경과 생태의 위기가 아닌 '신앙'의 위기다. 지구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쥐가 인간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박쥐 영역에 침범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사람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이 속해있다. '생태적 거리두기'를 통한 배려와 존중이 절실하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항구적인 비상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태도가 모든 것의 본질이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은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다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을 살펴보자. 이 책은 신학자가 아닌 종교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초기 기독교 발흥에 대한 탐구서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한 예수 운동이 서구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구제'를 몸소 실천하고, 당시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을 존중함으로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 기독여성단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서울YWCA가 되기를 소망한다.Y

연구모임을 인도하는 한혜영 부회장과 인사말씀하는 이유림 회장(왼쪽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이사 · 위원 · 실무자

세탁세제 품질 비교분석

세척력·안전성·경제성 고려한 소비자 선택 필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성을 중시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 또한 커지고 있어 세제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은 가루세제부터 시작해 액체형, 시트형, 캡슐형, 폼형 등 다양한 세탁세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 제품의 품질 차이와 특성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Y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 및 수입 브랜드 중 4개 제형,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력, 색상변화 · 이염, 안정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정리_ 소비자환경팀

분석 기간 2020년 8월 16일– 9월 4일

시험 · 평가 제품

- **액체형** 퍼실 파워젤, 리큐 제트, 피지 파워젤, 때가 쏙 비트, 다우니, 액츠
- **캡슐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센트라린 카포드, 커클랜드 시그니춰, 테크 수퍼볼
- **시트형** 피지 파워시트, 테크 간편시트, 디졸브, 프로닥스
- **폼형** 다우니 폼형 블루

결과

◉ 세척력

화장품, 카레, 케첩, 블루베리 쥬스, 혈액, 습식인공오염 등 6개 오염에 대한 세척력 시험 결과, 센트라린 카포드(캡슐형), 커클랜드 시그니춰(캡슐형) 2개 제품의 세척력이 가장 우수했고, 퍼실 파워젤(액체형), 다우니 프리미엄(액체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때가 쏙 비트(액체형), 디졸브(시트형)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 KS M 2709(합성세제 시험방법): 의류용 합성세제의 세척력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하여 진행 [수온 30℃, 교반속도(섞는 속도) 120 rpm, 10분 세탁, 3분 2회 헹굼]

◉ 색상변화 · 이염도

세탁 시 염료에 대한 색 빠짐 정도와 이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15개 제품 모두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제품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리큐 제트(액체형)와 다우니(액체형) 제품이 이염에 대한 방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센트라린 카포드(캡슐형) 제품은 상대적으로 이염 방지 효과가 낮게 평가되었다.

◉ 안전성

세탁세제를 포함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5가지 물질**에 대한 정량 분석 실시 결과,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시험 · 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벤젠, 비소, 염화비닐, 브롬화에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표시사항

세탁 시 필요한 적정 세제량 표시 유무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적정 세제량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품별로 사용량의 차이가 있고, 정확한 세탁물 양 정보 없이 '보통 빨래량', '3-7kg당 1개' '중수위(60ℓ)당 1장' 등으로 표시하여 적정 세제량의 기준이 모호한 제품도 있었다.

고체세제(캡슐 · 시트 · 폼형)의 경우, 보통 세탁량 7kg당* 제품 사용 개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1인가구용과 다인가구용으로 구분하고 사용단위를 세분화하는 등 소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품 생산과 사용량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보통 세탁량 7kg은 4인 가족 1회 평균 세탁량 기준임

◉ 경제성

가격 대비 품질은 오히려 가장 비싼 제품의 세척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과 품질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커클랜드 시그니춰(캡슐형) 제품이 1회 세탁(세탁량 7kg 기준) 시 194원으로, 세척력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품별 세척력]

제품명 (제형별 가나다순)	세척력							세제 형태
	습식인공 오염포[1]	메이크업	카레	혈액/우유/ 잉크	케찹	블루베리 주스	평균 세척력과 상대비교	
다우니 프리미엄	48.4	51.7	7.4	24.2	71.2	49.1	★★★★★	액체형
리큐 제트	51.6	51.1	7.4	23.8	61.3	49.4	★★★★	
비트	33.2	42.5	7.4	8.7	58.9	47.1	★	
액츠 퍼펙트 베이킹소다	47.5	53.4	5.8	21.1	62.1	47.8	★★★	
퍼실 파워젤	49.5	56.6	7.7	22.8	64.7	48.1	★★★★★	
피지 파워젤 오리지널	42.7	52.2	8	20.2	60.8	47.8	★★★★	
디졸브	25.5	30.1	7.9	8.3	57.5	47.3	★	시트형
테크 간편시트 후레쉬 브리즈	50.2	47.4	8.7	10.8	61.1	50.9	★★★★	
프로닥스 시트세제 더블액션	32.6	34.3	7.8	9	59.1	50.2	★★	
피지 파워시트 프레쉬	38.5	34.8	8.1	9.7	58.7	49.4	★★	
센트라린 카포드	57.3	52.9	6.8	16.9	64.4	52.9	★★★★★★	캡슐형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팩	53.8	70.3	9.4	23.2	95	52.1	★★★★★★	
테크 슈퍼볼 초고농축 클린향	36.2	45.9	4.9	8.9	60.7	51.7	★★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파워	41.9	50	0.6	14.2	69.9	52.7	★★★★	
다우니	35.2	44.9	9.2	8.8	60	51.2	★★	폼형

1) 피지 성분에 대한 세척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오염포

*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마리아 미즈 「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혜영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한때 젊음의 무게가 견디기 어렵던 적이 있었다. 마치 끝없는 사막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디가 내 길인지 몰라 두려웠던 적이 있었다. 사방이 전부 길이다 보니 오히려 내 길을 찾기 어렵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불면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 내 길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불안감은 있었지만 내 삶이 터널도 빠져나오기 전에 끊어질 거라는 공포는 없었다. 시간만이 유일한 자산이었지만 그래도 영혼은 궁핍하지 않았다. 적어도 영혼은 언제나 고민 중이었다. 나는 그렇게 막막하던 청춘의 터널을 지나 살아남았다.

개개인이 알아서 생존을 모색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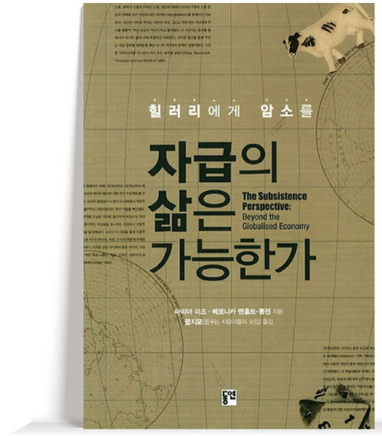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크게 높아졌다. 많은 이삼십대 여성들이 청춘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스스로 삶을 끊고 있다. 물론 이유는 있다. 코로나로 인해 주로 젊은 여성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겪는 생계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로 이미 여성노동자는 세 명 중 두 명꼴로 비정규직이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나마 비정규직조차도 빠르게 시간제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 물론 젊은 여성들의 인권 의식을 못 따라가는 기성세대의 가부장제 문화도 한 몫 거들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유를 찾아내도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길을 끊어버리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번뇌야 있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 앞에서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죽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랴.

나는 우리 사회가 IMF 이후로 매우 빠르게 서바이벌 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했다. 서바이벌 사회는 개개인이 알아서 생존을 모색하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 능력주의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능력에는 온전히 자기 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사에 통달한 좋은 부모를 갖는 것도 능력이고, 뒤를 밀어줄 돈 많은 조부모를 갖는 것도 능력이다. 비슷한 계층 간의 결혼으로 탄탄한 인맥의 그물망을 짜는 것도 능력이며,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자식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저런 조합으로 능력이 배가된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기 위해 권력과 돈과 명성의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만드는 동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올라가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자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갔다.

생태적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돌봄

마리아 미즈(Maria Mies, 1931~)는 반다나 쉬바(Vandana Shiva, 1952~)와 함께 70년대부터 맹활약을 한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스트이다. 독일 시골 출신인 미즈는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미즈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는 모두 같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불평등 체제라고 보았는데, 바로 여성과 원주민과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그것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과 원주민과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같은 폭력이라고 보았기에 생태적 전환이야말로 약자들의 삶을 살리는 진정한 돌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미즈의 스승은 에콜로지도 페미니즘도 전혀 모르던 어머니였다. 미즈는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에서 세상의 위기 앞에서 토박이 농부였던 어머니의 지혜를 들려준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패망이 짙어지자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경작도 포기한 채 소와 돼지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즈의 어머니는 "삶은 계속된다"며 암퇘지를 다른 수퇘지에게 가져가 새끼를 얻었다. 전쟁이 끝나고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돼지새끼를 팔아 생필품을 사기 시작했다. 비록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시골 농부였지만 어머니는 마치 매일 일용하는 빵처럼 삶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이다. 바로 자급적인 삶이다. 여기서 자급이란 서바이벌과는 다른 관점이다. 자급은 경쟁이 아닌 협력이며, 사유가 아닌 공유이고, 생존이 아닌 공생이다. 다른 약자들을 돌보며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다.



마리아 미즈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도서출판 동연, 448쪽

미즈는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에서 세상의 위기 앞에서 토박이 농부였던 어머니의 지혜를 들려준다. 비록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시골 농부였지만 어머니는 삶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바로 자급적인 삶이다. 자급은 경쟁이 아닌 협력이며, 사유가 아닌 공유이고, 생존이 아닌 공생이다. 다른 약자들을 돌보며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다.

서바이벌 체제에서는 삶이 계속될 수 없다. 만약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더 많은 공원을 만들고, 더 많은 도서관을 짓고, 더 많은 자연을 보존했더라면, 그래서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딛는 청년들이 비록 어느 길로 갈지 몰라 두렵더라도 내 앞에는 도무지 길이 없다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했더라면, 이들의 자살은 막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 대신 끝도 없이 고층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4대강을 파헤치고, 해군기지를 짓고,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자살하는데도 마치 예전처럼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리라 믿으면서.

박혜영 교수는 에코페미니스트이자 영문학자로 시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저서로 「느낌의 0도」,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공저),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공저) 등이 있다.

성(性)과 영성 sexuality and spirit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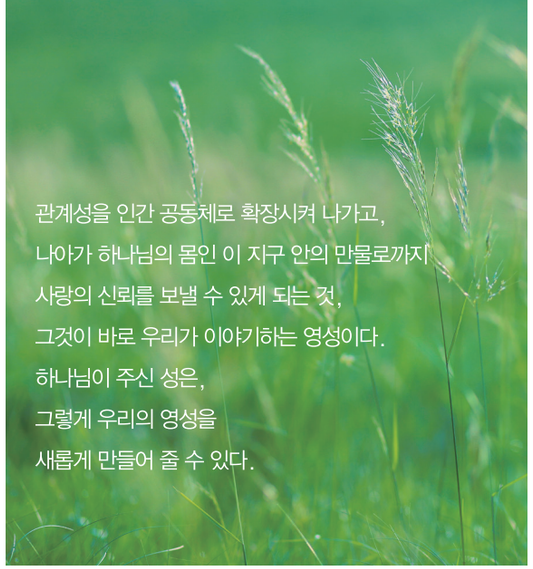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몸과 성에 대해

이주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강사

두 아들의 엄마이자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서적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다양한 고민을 접하기도 한다. 성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을 물어보면 대부분 혼전순결주의와 금욕주의를 든다. 중세시대에 발전한 독신주의는 인간의 성을 타락을 통해 훼손된 것으로 보는 금욕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출산)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 제도 안에서 성행위와 재생산을 포함하고자 하는 신학적 이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육체의 악함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에 대항해 성육신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혼을 재생산(출산)과 함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성은 몸의 감각 전체

지금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모든 영역에 번져있어 마치 삶에 깊이 스며든 미세먼지와 같다. 아예 밖을 나가지 않는 행동(금욕주의)이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한두 대 놓는 식의 예방 위주의 성교육으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과 몸에 대한 재개념화와 거대한 전환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성과 몸이란 무엇일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든, 금욕주의와 혼전순결주의이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성을 '몸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성 개념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성적(asexual being) 존재이며 가끔씩만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전통적 경향의 영향이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를 통전적인 하나로 파악하는 히브리 전통을 재조명한다면, 성은 몸 전체의 감각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죌레(Dorothee Steffensky-Söelle, 1929-2003)는 인간의 성은 몸의 감각 전체이며, 우리가 자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데요?" 라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보자.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폭신한 이불을 덮을 때, 꽃다발에 코를 파묻을 때 그러한 감각을 느끼는 몸,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몸, 움직이는 팔다리, 깜박이는 속눈썹, 갸웃거리는 몸짓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전체라는 것이다. 이런 몸을 사용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어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몸짓, 미소,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동시에 떠올린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은 시작되는 것이다.

성과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

재생산과 직결되는 생식기 위주의 성 개념에 익숙한 현대인들도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기의 결합 여부'로 성폭력을 정의했다면, 지금은 슬쩍 만진다거나 아니면 성적 대상화의 시선으로 본다거나, 혹은 성적 어감이 담긴 말과 제스처 모두가 성폭력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본다고 닳냐"라는 말이 이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는 것은 보는 것, 말하는 것, 슬쩍이라도 닿는 감각 모두를 인간의 인격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시선만으로도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은 어렴풋이 재개념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고, 몸은 인간이 타인, 사회, 자연과 관계 맺는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자 인간 자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성행위는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서의 성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고 받아들이고 나를 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만족이나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의 몸과 성을 이용하는 것은 그 관계성을 깨뜨리는 죄가 되는 것이다. 동등한 관계 안에서 상호적인 사랑을 통해 친밀한 연대를 맺는 것, 그것이 성과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성적 매력으로만 그 사람을 파악하거나 그 사람의 성과 인격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인격적인 성과 몸 개념이다.

영성을 새롭게 하는 성

우리는 성과 몸을 통해 다른 이와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성적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연대성은 다른 이들과의 신뢰나 연대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고립되어 있던 개인이 인격적 신뢰를 경험한다면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경험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무한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경험은 그 신뢰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로 확장 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계성을 인간 공동체로 확장시켜 나가고, 나아가 하나님의 몸인 이 지구 안의 만물로까지 사랑의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가부장 사회에 도전한
조선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나혜석
1896. 4. 28-1948. 12. 10

정월(晶月) 나혜석은 일제 강점기 조선 최초의 천재적 여류 서양화가이자 문학가요 진보적 여성 운동가였다. 그는 수원에서 아버지 나기정과 모친 최시의 사이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나기정은 대한제국 시기에는 경기도 관찰부 재판주사를 지냈고 일본 식민 통치기에는 용인 군수를 지내는 등 지배계층에 속했으며 당시로는 개화된 사람이었다. 나혜석의 두 오빠는 일본에서 유학중이었으며, 나혜석은 진명여자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오빠들의 영향으로 17세에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 유화과에 입학한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기에 자연스런 진로 선택이었다. 일본에서 서구 근대 문물을 접한 나혜석은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 조선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눈뜨게 된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여권 신장과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상적 부인〉이라는 글을 통해 여성도 실력을 쌓아 전통적 현모양처가 아닌 자신만의 입지를 만들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무렵 그는 조선에 어릴 때 조혼한 부인이 있던, 오빠 친구 최승구와 첫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1916년 최승구가 폐병으로 사망하자 충격에 빠진다.

유럽여행 후 그림에 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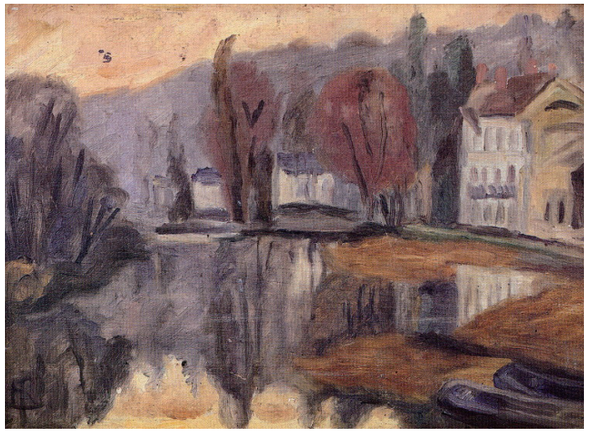
나혜석은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5개월간 옥고를 치르는데, 이때 도쿄 시절부터 6년간 나혜석에게 구애했던 김우영이 변론을 맡아 무죄로 풀려난다. 이를 계기로 나혜석은 1920년에 10년 연상이며 전처와 사별한 김우영과 결혼을 한다. 변호사 김우영은 당시 동아일보 창간 발기인에 참여할 정도로 사회 명사였으며 후일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한다. 나혜석은 결혼에 네 가지 조건을 내건다. 일생을 두고 나를 지금과 같이 사랑해주고,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주며,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나혜석은 결혼 후 화가로서 조선 전역에 이름을 떨쳤는데 1921년 70여점의 작품으로 이틀간연 첫 개인전은 4-5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산인해였고 전시된 그림이 모두 고가에 완판되었다. 그 후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때부터 매년 참여하여 입선과 특선 등 수상을 했다.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배운 사실주의적 작품을 했으나 1927년 남편이 외교관으로 유럽 시찰에 나설 때 함께 여행한 것을 계기로 그림에 큰 변화가 온다. 삼남매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시베리아 열차로 파리에 도착 후, 남편은 베를린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나혜석은 야수파 화가 비시에르의 화실에서 8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스페인 풍경〉 〈스페인 해수욕장〉 〈나부〉 〈무희〉 〈파리풍경〉 등 주요 작품을 남긴다. 〈파리 풍경〉에서 보여주듯이 야수파의 영향으로 형태는 단순화되고 그의 필치는 더 자유로워지고 색채도 대담해졌다. 유럽의 미술관, 박물관, 풍광이 모두 그의 선생이었다.

행려병인 수용소에서 안타까운 최후

이즈음 천도교 도령으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최린을 파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는 나혜석보다는 18세 연상인 유부남이었지만 둘은 첫 만남에서부터 끌리게 된다. 두 사람은 오페라극장, 카페, 호숫가, 호텔 등에서 자주 밀회를 가졌고, 이 사실은 현지 조선인들뿐 아니라 조선에도 퍼지게 되어 조선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유럽과 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김우영은 본인의 외도, 시댁의 횡포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부인의 외도만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했고, 나혜석은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반대했으나 결국 1930년 11월 35세의 나이에 이혼과 함께 평생 자녀들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해 5월에는 〈삼천리〉 5월 호에 「우애결혼, 시험결혼」이라는 미국 여행담 인터뷰에서 이혼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험결혼이 필요하며, 그 시기 동안에는 산아제한이 필요하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발언을 한다.

나혜석, 작품 앞에서



〈파리 풍경〉 1928. 목판에 유채, 23.5x33cm, 개인 소장

이혼 후 최린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세상의 낙인과 차가운 시선,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 독립적 인생을 살아간다. 파리 체류 당시 목격했던 〈생제르망 성당문〉을 그린 것이 두 번씩이나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 자존심을 회복했으나 그 후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작업을 지속했으나 집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보물처럼 아끼던 그림들이 모두 불타고 만다. 이로 인해 받은 엄청난 충격으로 그는 점차 병약해졌고, 더구나 자녀를 볼 수 없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그는 수덕사에 은거하던 중 1940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하다 일본의 감시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파킨슨병에 정신이상증세까지 생긴 그는 이곳저곳 시설을 떠돌다 행려병인 수용소였던 경성불교자제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김우영이 결혼 조건 2-4는 다 지켰으나 가장 중요한 1을 어김으로써 생긴 당대 최고의 신여성이며 엘리트였던 나혜석의 안타까운 최후였다.

필수가 된 산후조리원, 현명하게 조리하자

최근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 출산 후 필수 코스가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산모 4명 중 3명(75.1%)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해당 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용 산모는 더 늘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의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를 내주기도 한다. 이용이 증가한 만큼 다양한 피해사례 역시 발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처리 건수는 2017년 42건에서 2019년 105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 산후조리 기본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협력업체를 통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예 : 산전 · 산후 마사지, 산모 · 신생아 사진촬영, 피부관리 등)

사례1 **입소 한 달도 전에 해지 요청했는데 자체 규정이 있다며 거절 당했어요.**

C씨는 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1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예정일 40일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다.

사례2 **아기 성장앨범을 무료로 촬영해 준다 해서 계약했는데, 사진 대금을 요구해요.**

Y씨는 산후조리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기를 위한 성장앨범 촬영서비스를 안내 받았다. 산후조리원 제휴 스튜디오라고 하여 안심하고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후 만삭 촬영과 신생아 촬영 서비스를 받은 후 원본사진을 요청하자, 스튜디오는 원본사진은 계약에 없었다며 구매하려면 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원본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따로 개인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사례3 **부가서비스인 피부관리를 받고 피부가 상했어요.**

W씨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면서 피부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기로 했다. 서비스를 받던 중 이마에 여드름이 생겼고, 제거해주겠다고 하여 동의했다. 지속적인 관리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색소침착으로 레이저시술을 받아야 하며 치료비는 80만원이 든다고 했다. 관리사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해야 하며, 협력업체와의 책임 관계[부가서비스 제공 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 거래조건(내용 · 요금체계 ·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조리원 관련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외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 기준, 사전설명과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후조리원 사업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_ **김보민** 소비자환경팀 간사

Check List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현명하게 이용하기

- ☑ 안내창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서비스 관련 주요정보(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 사전 숙지
- ☑ 조리원 관련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외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계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미리 메모
- ☑ 부가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명 · 연락처 · 사업자등록 · 자격 여부 등 확인

사진 촬영 서비스

- ☑ 해당 서비스를 필수처럼 설명하며 추가 대금 결제를 강요 · 권유할 경우 신중히 결정, 거절 시 확실하게 의사표시
- ☑ 촬영 후 원본사진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추가비용이 드는지 확인 후 결정
- ☑ 패키지 형태로 결제할 시에만 할인이 되는지 확인

피부미용 · 마사지 서비스

- ☑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 자격 · 면허 여부 확인
- ☑ 서비스 이용 중 산모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주요정보 확인
- ☑ 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는 점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후조리원)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금의 30% 환급 ⇨ 계약금 전액 미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회원이 되어주세요

서울YWCA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 · 나눔 · 치유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 구분

구 분	회 비
월 CMS	월 10,000원부터 직접 금액 지정
어린이 · Y-틴	5,000원
대 학 생	15,000원
일 반 · 회 우	30,000원
유 지	75,000원
평 생	1,500,000원 (회원증모기간 내 1,000,000원)
단 체 (기 업)	150,000원부터

문의 02-3705-6008

입금 계좌 농협 386-01-020282 (예금주 :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서울YWCA 회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비가 할인됩니다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일본과 주변국은 물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핵 사고의 연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왔음에도, 값싸고 무모한 방법을 선택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과 신뢰를 저버렸다. 이에 한국YWCA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기를 맞는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폐해진 자연의 상처를 목도해왔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순차적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는 사용이후에도 여전히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을 기준치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방사능 물질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엄청난 피폭량에 이르게 된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방사능의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주변국의 현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며, 세대를 거쳐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적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 움직임에 부응하여, 지난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국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접하고 있는 태평양 바다는 전 세계의 자원이다. 따라서 자국의 얕은 이익만을 꾀하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해양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일본 정부가 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국내의 시민들, 그리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는 4월 19일(월) 낮 12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 장례식을 치뤘다.

3·8 세계 여성의 날 온라인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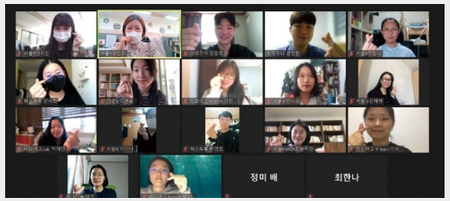
서울Y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를 기념하며 3월 8일부터 12일까지 SNS 캠페인을 펼쳤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빵과 장미를 요구했다. 기념 영상을 시작으로 #choose to challenge 참여, 쉬세션(shecession)=여성(she)+경기침체(recession) 현상 알리기, 교회의 평등 리더십 요구, 현재의 성평등에 대한 의견 공유 활동 등을 전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주위에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여성의 날이 무의미해지는 날까지 서울Y는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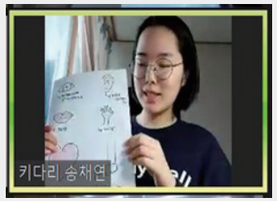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빵)과 참정권(장미)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해 1911년 유럽에서의 첫 관련 행사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지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이렇게 세계 여성의 날이 탄생한 지 올해로 113년을 맞았다.

청소년 신임원 연대활동

청소년팀은 4월 10일 신임원 연대활동을 온라인으로 펼쳤다. 대학 · 청년YWCA 협의회 · 동아리 임원, Y-틴 협의회 · 동아리 임원 총 15명이 함께했다. 2021년 공통 목표를 공유하며 공동체로서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인권(장애인 · 노동자 · 사회적 약자), 여성(스토킹법, 안전), 평화(홍콩 · 미얀마 민주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통일), 환경(기후위기대응, 재활용, 미세먼지 없는 세상) 등이 공통의 이슈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며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가사노동자법 제정 촉구

서울Y는 '가사근로자(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으로 2월부터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과 함께 1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3월 18일에는 국회 앞 시위에 참여했다.

노원

직업교육훈련 영상 촬영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1 여성가족부 직업훈련교육 수강생 모집에 앞서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 직종에 대한 전망 등을 안내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은 온라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영등포

코스콤 IT 분야 취업 교육 지원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8일 (주)코스콤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IT 분야 취업을 위한 무료교육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양성과정'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뉴미디어 교육을 통해 온라인 교육 기획자와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자신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봉천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습관 챌린지'를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맞춤형 친환경 먹거리와 레시피를 월 1회(3-6월)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건강요가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강남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강남청소년수련관은 3월 20일 2021년 제2기 강남구 아동 ·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강남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소속된 24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위원회 활동목적과 연간활동 안내, 임원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

누리봄

한국씨티은행 '한부모 가정 돕기' 후원금 전달

누리봄은 3월 24일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한국씨티은행 여성위원회가 3년째 지속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이주현 여성위원장, 서울Y 이유림 회장, 양선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후원금 1,600만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지원과 초등학생 아동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YWCA

2021 서울YWCA 회원걷기대회 Ontact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희망 나눔

5. 8 (토) - 5. 16 (일)

참가신청

대상 : 서울YWCA 회원 및 시민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 농협 386-17-000221 서울YWCA 〉

* 참가비 확인 후 기념품은 개별발송 혹은 방문수령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YWCA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2021 서울YWCA 회원걷기대회 ▶ 온라인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가비 납부

신청바로가기

참가방법

걷기기간 : 5. 8 (토) – 5. 16 (일)

기념품 수령 ▶ 걷기기간동안 선택한 도전거리 참여 ▶ 인증샷 찍기 ▶ 인증샷 업로드 ▶ 걷기 완료 후 '1m=1원' 자율적 후원하기 ex) 5km=5,000원

후원처

'누리봄'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상황 극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86-17-000221 서울YWCA 〉

신청·문의 : 02-544-9726 02-3705-6000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5월	6월
• 일시	5월 20일(목) 19:00	6월 17일(목) 19:00
• 주관	국제협력위원회	소비자환경위원회
• 문의	02-3705-6047	02-3705-6064

직업훈련 프로그램

노원 문의 02-951-0187

과정	일정	교육비
스마트융합 메이커디자이너	5월 3일-8월 24일 (월-금) 9:30-13:30	10만원 (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 · 창업시 5만원 추가환급)
지역아동돌봄 전문가	5월 10-7월 19일 (월-금) 9:30-13:30	
AI학습데이터 어노테이터	6월 14일-7월 12일 (월-금) 9:30-13:30	

영등포 문의 02-858-4514

과정	일정
초등돌봄교사 &키움코디양성	5월 26일-7월 30일 (월-금) 9:30-13:30 *설명회 5월 11일(화) 11:00
세무회계사무원	5월 31일-8월 27일 (월-금) 14:00-18:00 *설명회 4월 30일(금) 14:00
영상콘텐츠활용 강사 양성	6월 2일-8월 24일 (월-금) 9:30-13:30 *설명회 5월 18일(화) 11:00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한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5월 12일(수) 6월 16일(수)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0세 이하 여성	5월 12일(수)-13일(목) 6월 16일(수)-17일(목) 10:00-18:00	10만원
세이프맘			
간병사	60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5월 21일(수) 6월 18일(금) 13:00-18: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ALENDAR 2021 5

월	화	수	목	금	토
					1 • 피스톡톡 정기모임 (15, 29일) 11:00 • 그린Y 정기모임 (15, 29일) 13:00
3 • Access 영어교육 (한꿈학교, 매주 월 · 금) 9:30	4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 · 정책분과 14:00	5 어린이날 • 누리봄 어린이날 행사 11:00	6 • 봉천 어버이날 행사 11:00	7	8 Ontact **회원걷기대회** 5.8-16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2일) 14: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22일) 15:00
10 위원회 역대이사 11:30 • Y-틴 C.A (정신여고, 31일) 15:10	11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준비 회원 · 모금분과 13:00	1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 10:00 아기돌보미 · 세이프맘 (~13일) 10:00 • Y-틴 C.A(이화여고) 14:20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 (26일) 19:00	13	14 위원회 • 강남Y 11:00 • Y-틴 C.A(중암중) 13:40	15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17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18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9 부처님 오신 날	20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21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 Y-틴 C.A(정신여중, 28일) 14:25	22 • 청소년팀 인준식 13:00
24 위원회 봉천Y 11:00	25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6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7	28	29
31					

CALENDAR 2021 6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 · 정책분과 14:00 • 봉천 시설운영위원회 11:00 • Y-틴 C.A(이화여고, 16, 23일) 14:20	3	4 • Access 영어교육 (한꿈학교, 매주 월 · 금) 9:30	5 • 피스톡톡 정기모임(19일) 11:00 • 그린Y 정기모임(19일) 13:00
7	8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준비 회원 · 모금분과 13:00 • Y-틴 C.A(정신여고) 15:10	9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23일) 19:00	10	11 • Y-틴 C.A (정신여중, 18일) 14:25 • Y-틴 C.A (중암중, 25일) 13:40	12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 · 산후조리사 재교육 10:00 요양보호사 재교육13:00 가사돌보미 · 간병사 재교육 14: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6일) 14:00 • 씽크머니 정기모임(26일) 15:00
14 위원회 역대이사 11:30 • Y-틴 C.A (정신여고, 매주 월) 15:10	15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6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 10:00 아기돌보미 · 세이프맘 (~17일) 10:00	17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8 위원회 강남Y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19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21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22	23	24	25	26 •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이론편) 11:00
28 위원회 봉천Y 11:00	29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30			

회원 소식

김해정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아들 장지현 씨
3월 13일(토) 낮 12시 30분
PJ호텔에서 결혼

강영옥 소비자상담 활동가
3월 18일(목) 소천

윤미소 누리봄 사회복지사
4월 17일(토) 낮 12시
베라카채플웨딩 2층에서 결혼

이유림 회장
2021년 올해의 이화인 선정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 · 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 · 일상생활 ·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 · 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 · 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 · 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2021년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돌봄과살림 회원협의회

가사돌보미	회장	성금자	부회장	손정열
	서기	이영순	회계	김정옥
산후조리사	회장	김선재	부회장	진학심
	서기	박은순	회계	신명숙
아기돌보미	회장	민경희	부회장	차양숙
	서기	박경희	회계	이미자
간병사	회장	곽석순	부회장	길명순
	서기	박미자	회계	박경희

대학 · 청년Y 협의회

회장	김시원(명지대, 그린Y)
부회장	김혜연(인하공전)
서기	양서희(한국외대, 피스톡톡)
총무	최형원(성신여대, 그린Y)

Y-틴 협의회

회장	이다나(동구마케팅고)
총무	조윤나(동구마케팅고)

병원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외래 진료나 당일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에 동행하면서
복잡한 병원 업무를 편안히 도와드립니다.

-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서울시내 병원
- **방법** 이용일 3일 전까지 전화상담 후 온라인 결제
- **비용** 기본 4시간 72,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www.ywcacare.com
  서울돌봄과살림
  검색창에 '서울돌봄과살림'을 검색하세요
- **문의** 02-3705-6071

ISA KNOX

감사합니다

2021년 2월–2021년 3월

특별 후원

일시후원

• 고려인민족학교 후원

김진숙 배정미 양선희 양진화
이은숙 이은숙 최 봄 최한나

• 서울돌봄과살림 임원훈련 후원

여성능력개발위원회 이옥희

김영자 김은경 전용욱 전현숙 최미소(최충만)
㈜내일과내일

정기후원

박미란 윤정자

난민소녀 학교 보내기 후원

김정순 송순옥 월요까페 이홍자 임온유 정수경 조종남

핑크박스 후원

구영숙 박대화 배정미 염현경 오경아 우정현 이윤선 이재림
임지영 정정심 조순영 채서은 최경자 최유진(위호정)

복지사업단 후원

강명희 강민아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난희 김도근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한주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변옥균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선희 양수경
양진화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관우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신 조정현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북멘토링 후원

구영숙 권영아 김난희 김민아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선희 양진화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월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종미 이푸른하
이희정 임재연 전은금 정나미 정정심 최동수 최 봄 최수경
최정우 최한나 한정신 한혜영

도서후원 정모아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보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윤희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창우
강춘호 강충모 강하자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미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흥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윤 곽민정 곽승희 곽지영
곽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민석 권범찬 권성준 권영아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형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겸용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관옥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옥 김기옥
김기종 김기홍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회 김랑순 김말녀 김명순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선 김민성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병호 김병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은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세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정 김소희
김수림 김수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선 김양숙 김언정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미
김영순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매 김옥민 김용갑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유진 김윤나 김윤숙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의열 김익동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영 김재진 김정구 김정기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완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원 김종진 김종하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욱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하은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화진 김효숙 김효은
김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소 노수연 노영식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주현
동지현 류아라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마연희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영석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옥 박경지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명순 박명원 박명윤
박미경 박미경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종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애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슬 박은별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길 박종인 박종화 박종희 박주희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찬영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환 박현경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반미복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동숙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재호 배정미 배정숙 배정인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수정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산드라윤 서근배 서문순례 서미화 서분이 서빛나
서승훈 서영미 서옥덕 서옥희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석지윤 선점환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시욱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익경 성지윤A 성지윤B 성지희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병우 송상경 송선희
송성인 송세실 송영채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주원 송창은 송태언 송하림 송하윤 송혜승 송혜영
송효수 송희승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하 신민자 신상우
신서현 신승은 신연식 신영순 신용자 신우람 신재은 신지윤
신청희 신충섭 신현미 신현수 심경호 심다영 심위현 심재원
심정자 심진수 안병세 안병수 안성원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영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선희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현옥 엄금란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염혜정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태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한

왕청식 용윤희 우성도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경숙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연숙 유원균 유은경 유은숙 유은정
유재미 유재순 유재현 유정선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유희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승숙 윤아름 윤은희 윤장범 윤재숙 윤정자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 혁 윤현진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돈행 이동수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은 이동준
이동헌 이명순 이명옥 이명원 이명자 이명혜 이명호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범석 이범재 이병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석초 이선덕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수범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자 이순재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일 이승재
이승진 이승진 이승철 이승한 이승헌 이승혜 이승희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용숙 이용식 이용호 이원경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경 이재림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재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환 이정희 이제욱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천희 이춘옥 이충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필영 이한기 이한성 이한승 이행남 이행자 이헌국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진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임등자 임명희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희 임완철 임우택 임재영 임재원 임정자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중현 임지현 임지혜 임한솔 임현정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영신 장용익 장윤정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영 장화정 장휘진 전민구 전복남
전봉숙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금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계숙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미희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주 정선희 정소영 정소희 정수경
정순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영롱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심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태순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옥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근묵 조기숙
조길수 조남억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신 조예성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진영 조진희 조춘숙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좌혜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주혜성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성호 차지혜 차학주 채송화 채송화
채은주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두훈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봄 최봉수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희 최순근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진 최윤형 최은주 최인숙
최정호 최정희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호 최지희
최태영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현주 최혜련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금례 한민희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아소 한예성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지현 한지희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영록 허영숙 허 웅 허자영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영주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유진 홍윤서
홍은미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주)아이린앤컴퍼니 (주)제이티 중앙이엔씨
(주)체험왕

후원 계좌 | **농협 386-01-020282** (예금주 :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붓꽃 *I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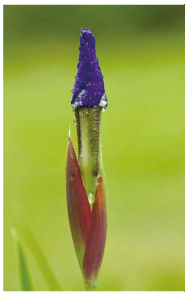
붓꽃과 Iris family 여러해살이풀

꽃봉오리가 붓을 닮은 붓꽃은 봄이 무르녹은
5월부터 초여름에 걸쳐 피지요.
학명 아이리스는 붓꽃과 식물의 총칭으로
전세계에 걸쳐 1500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각시붓꽃 제비붓꽃 타래붓꽃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랑붓꽃Iris koreana은
학명에서도 알 수 있듯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에요.

아이리스는 그리스 신화 속 아름다운 여신인데
서양에서는 여성의 이름으로 사랑 받지요.
잎이 칼 모양을 닮았다고 용감한 기사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프랑스의 국화가 되었어요.

요즘 물가에 많이 심는 키 크고 꽃도 큰 꽃창포는
고흐가 말년에 즐겨 그린 서양붓꽃이랍니다.



글 **이경순** 명예위원

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y.or.kr 870-4400
스포츠센터	수영 · 헬스 · 피트니스 3705-603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구인	가사돌보미 · 산후조리사 · 아기돌보미 3705-6013~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간병사 858-4516~7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누리봄	www.bongchuny.or.kr 888-7983